



학생 재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현술

우리나라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이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균 1.21명의 출생아를 낳는다는 뜻으로 남녀 두 명이 만나 1.21명의 자식을 낳으므로 장차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와 같이 너무 낮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당면 과제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태어난 출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안전사고는 2008년 6만 2,794건, 2009년 6만 9,487건, 2010년 7만 7,496건, 2011년 8만 6,468건, 2012년 10만 365건, 2013년 10만 5,0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2013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하 913명은 피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는 2014년 215명이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기성세대들이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소홀하였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손상과 질병 및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상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학생에게 재해보상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산업체 노동자와 농업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재해보상보험을 실시한다. 독일은 학생 재해보상보험(GSUV, Die Gesetzliche Schülerunfallversicherung)을 1971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부로 법을 제정하였다. 독일 연방법원이 1967년 판결을 통해 학생 재해보상보험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법원은 “사회적 법치국가는 체육시간과 같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생긴 신체의 중대한 상해에 대해 아동에게 적절하고 공적이며, 법적인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세 이상부터 성인인 대학생까지 포괄하여 예방과 재활, 손해배상을 상해보상연금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비용은 학교기관과 주에서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 보육교사, 교사의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치료와 재활, 보상비용이 늘어나겠지만, 학생인 재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이러한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 학생 재해보상보험은 상해를 입은 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교내 화합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손상과 질병 및 사망의 사전 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였다.

연도별 학교안전공제 급여의 지급 추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상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공제급여 지급 건과 보상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학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과실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도별로 보상 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대학생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철저한 안전사고 원인 조사와 사전예방활동을 통한 시하는 경향이 있다.

세월호 참사 및 각종 재난 및 대형사고의 참혹함은 국민 모두에게 안전과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1세 이상부터 성인인 대학생까지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사고예방과 건강보호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며, 건강하고 숙련된 인적자본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해당 가족에 대한 경제적, 교육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중장애를 입은 학생들을 재활 치료하여 교육복귀와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이다. 학생들은 재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의료를 남용하는 경우도 적을 것이다. 어떠한 보편적 복지보다 우선적으로 학생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하여 어린이들과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손상과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려서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실전형 체험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실시하여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안전보건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를 기르며, 일상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 위험을 예측해서 항상 안전보건의 위험을 확인하며, 정확한 판단으로 안전보건 생활을 존중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산업체 등에서 안전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을 기르게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환경 및 풍토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안전보건을 생활화하여 평생 손상과 질병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여 자신이나 이웃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난이나 대형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 재해보상보험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법제화하여야 한다. ☺